

고흥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사업 '탄력'

100세대 규모 독일마을 조성...獨 복지시설 점목 펼친 등 4개 도시 현지 설명회서 26명 가계약 성과

고흥군이 최근 진행한 독일 현지 설명 회를 계기로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독일 쾰른, 프랑크푸르트 등 4개 현지에서 당초 예상 인원인 200명 보다 50%가 늘어난 300여명이 참여하며 사업 내용, 입주 상담 등 새꿈도시 조성사업 설명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사업'은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산 1 24번지 등 6필지(면적 3천318㎡(2만평) 부지)에 100세대 규모의 전원주택과 커뮤니티시설, 파독 근로자 전시관, 노인복

지시설 등 복합주거단지를 갖춘 마을 조성사업이다.

고흥군은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 사업추진의 민·관 합동 현지 설명회로 독일마을 조성 의지와 부지 선 확보, 토지이용 주택 개발행위 즉시 가능, 공공 시설(도로·상수도 등) 지원 등 차별화된 민음으로 70여명의 상담을 통해 26명(1차)의 가계약 성과를 거뒀다.

고흥군은 올해 10월까지 재독 교포의 고국 방문 시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 현장 방문과 설명회로 입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 게이아



고흥군이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해 금산 석정지구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

〈고흥군 제공〉

트룸 요양원을 방문해 시설구조, 요양원 입소자 관리, 시설 운영·관리 등에 대한 안내 견학과 설명을 듣고 이곳 복지시설의 장점을 새꿈도시(독일마을)에 접목할 계획이다.

새꿈도시(독일마을) 100세대는 1단계(50세대)와 2단계(50세대)로 나눠 추진하고, 토지는 330~600㎡ 규모로 분양하며, 주택은 50~100㎡ 등으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1단계 추진 50세대는 독일식과 한국 주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2단계 추진 50세대 주택 구조는 현대식, 한국, 독일식 등으로 입주자의 선택 폭을 넓혀 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동안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사업 택지 분양을 위한 재독 교포, 귀농·귀촌인, 도시권 은퇴자 등 입주 희망자와 이번 독일 현지 방문 희망자를 포함해 46명이 넘어 1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고흥군은 관련 법에 따른 사전 소규모 환경성 영향평가, 소규모 사전재해 영향평가, 산지전용허가, 토지개발행위 등 인허가 행정절차를 먼저 추진해 새꿈도시(독일마을) 조성사업 착공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재독 교포 설명회 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며 "파독 근로자, 간호사 등이 노후에 고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꿈도시(독일마을) 마을 조성에 치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최봉환기자〉



구북구 화순군수가 최근 능주면 만수리 일원에 준공된 과학영농시설을 방문했다.

〈화순군 제공〉

'부유 농촌 실현' 화순군,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박차

52억 투입...과학기술 접목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개소 춘란산업 육성 탄력 등 고소득 창출·경제 활성화 기대

화순군이 민선 8기 역점 공약 사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농산물안전분석센터 개소식에 구북구 군수를 비롯해 하성동 화순군의회 의장·군의원, 박관수 전남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농업 관련 기관·학습단체장, 농업인 등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농산물안전분석센터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적 분석

과 영농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능주면 만수리 388-8번지 일원에 신축됐다. 잔류농약분석기, 토양성분분석기 등 최첨단 정밀 분석장비·실험기자재 100여종을 갖췄다.

건물 1층에는 경작지 토양 정밀검정과 맞춤형 토양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검정실', 병해충 사전 발생 예측과 방제 정보를 제공하는 '병해충예찰실', 2층에는 출하 농산물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와 농산물 적기 출하를 지도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을 마련했다.

화순군의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화순춘란 재배 교육장'에는 총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능주면 만수리 556-9번지에 단동형 시설하우스 2개동이 신축됐다.

'화순춘란 재배 교육장'은 우량 춘란 육종과 지역 적을 실증으로 소득화 사업 지원을 위한 증식동과 농업인 현장 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동으로 구성되면서 화순군이 신성장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춘란 산업화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구북구 군수는 "무한경쟁 시대에 소득이 높은 부유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화순춘란 재배 교육장과 농산물안전분석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관내 농업인의 고소득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담양 대전면 지사협, '내 고향 나들이 체험' 추진

어르신 동행 소쇄원·향평 슬로시티 등 방문

담양군 대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지역의 어르신들과 협의체 위원 40여명이 함께 내 고향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평소 이동 수단이 없고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살아 여행의 기회가 없었던 고향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봄날의 뜻 깊은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협의체는 어르신들과 담양의 유명 문화재와 관광지인 소쇄원, 향평 슬로시티를 둘러보며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정현 대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협의체 위원들과 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소풍의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승모 대전면장은 "따뜻한 봄을 맞

아 협의체 위원들이 마을 어르신들의 관내 나들이 행사를 주관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르신들을 각별히 살피고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복지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강형구 순천시의회 "순천의대 유치 촉구"

전남 동부권 산업재해 빈발...의료 인프라 구축 시급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더불어민주당·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은 15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을 순천에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도내 국립 의과대학 신설 의지를 공개 표명했지만, 이 과정에서 전남도는 당초 추진했던 순천대와 목포대의 공동의대 설립안을 파기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을 비롯한 순천시의회는 의과대학 설립 인가와 관련해 법적 권한이 없는 전남도 주체로 공모 절차가 진행되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과연 전남도가 정치권의 부당한 외압,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 등 모든 불공정 위협으로부터 객관성 담보를 자신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전남 제조업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전남 동부권은 대규모 산업재해의 빈발로 의료 인프라 구축



이 시급한 점 ▲전남 동부권의 중심도시인 순천은 인접 도시를 포함해 생활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며 거대한 의료 수요가 밀집돼 있는 점 등을 들며, 순천대의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전남도내 의대 유치 약속 이행 ▲교육부의 객관적인 입지 선정 ▲전남도의 법적 근거 없는 의과대학 공모 계획 철회 ▲국립순천대 및 순천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의대 유치 추진 ▲잠재적 응급의료수요가 밀집된 전남 동부권 도민의 생존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장성군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팔 걷었다"

상무대 장병특식 마련...㈜더본코리아 등 다수 외식업체 참여

장성군이 외식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본코리아의 단체급식 노후유지를 전수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성군은 "최근 지역 외식업체와 함께 상무대 장병에게 특식을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

이날 장성군은 상무대 장병 1천400여명에게 장성 떡갈비 버거, 토마토 파스타, 랍스타 구이, 장성사과즙, 셀러드, 태극기 문양 쿠키 등 장성산 먹거리를 활용한 음식을 선보였다.

상무대 장병특식은 ㈜더본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단체급식 준비 방법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경영주는 물론 창업 준비 청년, 장성하이테크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했다.

군은 지난해 9월, 요리연구가이자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역특화음식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상생급식' 품평회도 가졌다.

〈장성=김문태 기자〉



구례군, 탄소중립 실현 전기 이륜차 지원

총 38대 보급...농업인에 20% 추가 지원

구례군은 15일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 이륜차 총 38대(일반 28대, 우선지원 4대, 배달용 8대)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구례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보급 차종에 따라 최소 1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해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법인·기관은 누구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뿐만 아니라 농업인에게도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

원한다.

또한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유형·규모별 보조금 상한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국비 3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 10%가 추가 지원된다.

전남도 내 생산 제품(에이치비) 구매 시에는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구례군 환경과(061-780-2154)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임종길 기자〉

곡성물 '봄 건강 챙기기' 기획전

21일까지 전 제품 10%·디톡스 제품 20% 할인

곡성군은 15일 "온라인 쇼핑물 '곡성물'에서 '봄 건강 챙기기 프로젝트'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전에서는 모든 제품을 10% 할인하며, 디톡스 관련 제품에는 추가로 10% 할인을 더해 총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예

산소신시조기 종료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봄철 흔히 겪는 춘곤증 극복과 건강한 봄을 위해 디톡스 제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상품으로는 유럽 상추, 그린파파야, 요거트, 꽃차, 발효식초, 꿀 등 총 68개 상품이다. 〈곡성=김영필 기자〉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물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디톡스 상품으로 건강도 챙기고 고품질 멜론을 받아보는 행운도 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햇빛 가득한 봄날을 맞아 곡성물에서는 4월 구매 금액 상위 20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출하 곡성멜론 한박스를 증정하는 '4월 구매왕을 찾습니다!' 이벤트와 함께 신규 가입 3천원 쿠폰 증정, 배송비 3천원 할인 등 풍성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